

# 단감재배농가의 병해충 약제 방제 실태 조사

이규철, 강창현, 박두상<sup>1</sup>, 이동운, 박정규, 추호렬

경상대학교 식물자원환경학부, <sup>1</sup>경남농업기술원 단감시험장

감은 사과에 이어 우리나라의 2대 과수이다. 1999년 감 재배면적은 30,800ha이며 이 중 단감의 재배면적은 23,907ha이다. 생산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과잉 생산으로 인해 매년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 단감의 수출에 노력하고 있으나 수출 대상국이 아직은 동남아 일부국가에만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단감 농가의 병해충에 대한 약제 방제 실태를 조사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방제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우리 단감의 해외 수출을 확대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경남 지방의 57개 단감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2000년의 방제 실태를 조사하였다. 일부 농가는 수확기 이후 농가를 방문하여 방제력을 수집하였고, 일부 농가는 한달에 한번 농가를 방문하여 방제력을 수집하였다.

년간 농약 살포 횟수는 10회가 가장 많았고 연 8회 살포한 농가가 26%, 9~10회 살포한 농가가 42%였다. 전체 57농가의 연중 살포횟수를 약제별로 보면 살균제 중에서는 mancozeb (80회)을 가장 많이 살포하였고, 다음이 thiophanata-methyl (63회), lime sulfur (40회), benomyl (37회), carbendazim (26회), propineb (25회), bitertanol (24회), myclobutanil (24회)로 이들 농약의 사용비율이 전체 살포된 살균제의 72.7%였다. 살충제 중에서는 deltamethrin이 72회로 가장 많이 살포되었고, 다음이 fenitrothion (55회), methidathion (39회), cyfluthrin (28회), tebufenozide (19회), lambda cyhalothrin (19회), tebufenozide + buprofezin (10회), ethofenprox (10회)로 이들 농약의 사용비율이 전체 살충제의 71.8%로 나타났다. 농가별 단감 적용약제 사용여부를 보면 살포한 전체 농약의 61.9%가 적용약제이었고, 38.1%가 비적용약제이었다. 조사 대상 농가 중에서 최종 약제 살포 시기가 가장 늦은 것은 10월 중순 (전체농가의 2%)이었으며, 9월 중순에 약제 살포를 마친 농가가 34%이었고, 9월 상순이 24%, 8월 하순이 13%로 나타났다.